한국간호대학생의 흡연 관련 요인

신차수¹ · 김철환^{2*}

¹서울시청 건강증진담당관
건강생활팀,
²인제대학원대학교 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

접수일 : 2009년 10월 29일
승인일 : 2009년 12월 9일

*교신저자 : 김철환
인제대학원대학교 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85
☎ 100-032
Tel: 02-2270-0946
Fax: 02-2270-0988
E-mail: fmmother@freechal.com

The Smoking Related Factors of Korean Nursing Students

Cha Soo Shin, RN¹, Cheol Hwan Kim, MD^{2*}

¹Health Promotion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²Inje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 Smoking Cessation Clinic, Seoul Paik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moking situation of female students in nursing colleges and to provide basic data regarding their smoking status and related factors.

Methods: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of 404 nursing students were collected from four nursing colleges in Korea from April 1 to June 15, 200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Ver. 12.0).

Results: The proportion of the current smokers and the past smokers was 6.4% and 5.7% respectively. Of the ever smoked group, 57.7% began smoking at the time of entering a college, 42.3% were stimulated to smoke by smoking classmates or seniors, and 46.2% intended to quit smoking within 6 months. The ever smoked group was more likely to drink alcohol and less likely to have knowledge, attitude, and a positive understanding of smoking than the never smoked group. Only 37.6% reported they took smoking cessation education.

Conclusion: The number of smoking peers and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smoking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ver smoking'. The more the nursing students had the number of smoking peers or a positive attitude toward smoking, the more they were likely to smoke.

Key Words: Smoking education; Nursing students; Smoking

Copyright © 2010 b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배 경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80년 79.3%을 정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9년 7월 현재 흡연율이 41.1%까지 감소하였고,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2002년 한 때 8.1%로 조사된 이래 최근 3.6%로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20대 성인여성의 흡연율을

보면 대상자에 따라 6.1%에서 38.3%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2-5).

그동안 국내외에 여성흡연과 관련된 연구는 많았지만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간호대학생의 흡연율 연구는 없었다. 다만 국제적인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간호대학생들의 흡연율이 남학생 9.5%, 여학생 3.6%, 전체 4.0%라는 보고가 한 개 있으나 이에 대한 한국

의 연구자나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6).

여자대학생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이유에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광정옥 등(4)은 스트레스 해소와 호기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이 친구나 선배의 권유라고 하였다. 임미희 등(7)은 스트레스 해소와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였다. 따라서 여자 간호대학생에서 어떤 요인이 흡연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 아는 것은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교육 전략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 보건의료인인 점에서 흡연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집단인 간호대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금연 교육을 기획하고 이들이 향후 건강증진의 모델이 되도록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방 법

1. 연구 대상 및 설문 조사 방법

연구 대상은 전국 4개 간호대학(서울 2개교, 부산 1개교, 경기 1개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선정은 편의 표본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4월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실시하였다. 수업 후 조교가 총 450부를 배포하여 431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21부 및 남자 간호대학생 설문 6부 등 27부를 제외한 40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된 결과는 SPSS/win ver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분석에는 기술적 통계분석법을 사용하였고, 흡연경험 유무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

1) 흡연자

흡연자의 정의는 매일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끔이지만 한 개비라도 피우는 사람(occasional smoker)을 포함하였다.

2) FTND

니코틴 의존도 측정도구는 Fagerstrom과 Schneider가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니코틴 의존도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총 6문항의 간이측정도구

(FTND)를 사용하였다(8). 이 도구는 10점 만점으로 0-3점은 니코틴의존도 낮음, 4-6점은 니코틴의존도 높은 편, 7점 이상은 니코틴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음주

음주측정도구(AUDIT)는 WHO에서 개발하여 김종성 등이 검증한 총 10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40점 만점에 8점 미만은 정상, 8-14점은 위험한 음주, 15점 이상은 알코올 사용장애로 분류하였다(9).

4) 흡연에 대한 지식

한국궐련조사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흡연실태 조사 보고서 및 우은경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10). 흡연 지식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상식을 묻는 질문이다. 4점의 Likert scale로 측정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 지식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흡연지식점수는 총32점으로 28점 이상(상), 17-27점(중), 16점 이하(하)로 3단계로 분류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 = 404).

Variables	Items	Frequency	Percentage
Grade	Freshman	79	19.6
	Sophomore	141	34.9
	Junior	109	27.0
	Senior	75	18.6
Religion	Christian	112	27.7
	Buddhist	57	14.1
	Catholics	44	10.9
	Others	6	1.5
	None	185	45.8
Personal monthly expenses (1,000 Won)	< 100	37	9.2
	100-199	10	22.2
	200-299	148	36.7
	≥300	129	31.9
Alcohol drinking (AUDIT score)	Normal (≤7)	233	57.7
	Borderline (8-14)	130	32.2
	Alcohol abuse (≥15)	41	10.1

Table 2.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Variables	Items	Smokers (n=26)	Ex-smokers (n=23)	Non-smokers (n=355)	P-value
Number of smokers among friends					< 0.001
	None	1 (3.8%)	4 (17.4%)	192 (54.1%)	
	1	2 (7.7%)	2 (8.7%)	70 (19.7%)	
	2-3	12 (46.2%)	9 (39.1%)	69 (19.4%)	
	≥4	11 (42.3%)	8 (34.8%)	24 (6.8%)	
Alcohol drinking					< 0.01
	Normal	9 (34.6%)	7 (30.4%)	217 (61.2%)	
	Borderline	12 (46.2%)	11 (47.9%)	107 (30.1%)	
Knowledge*	Alcohol abuse	5 (19.2%)	5 (21.7%)	31 (8.7%)	0.963
	High (≥28)	11 (42.3%)	10 (45.4%)	162 (45.5%)	
	Middle (17-27)	5 (57.7%)	13 (56.6%)	190 (53.5%)	
	Low (≤16)	-	-	13 (8.0%)	
Attitude [†]					< 0.01
	Positive (≥27)	13 (50.0%)	15 (65.2%)	286 (80.5%)	
	Equivocal (14-26)	13 (50.0%)	8 (34.8%)	68 (19.2%)	
	Negative (≤13)	-	-	1 (0.3%)	

*Knowledge about the harm of smoking.

[†]Attitude about health promotion model of nurses, recommendation for smoking cessation, and restriction for second hand smoking.

5) 흡연에 대한 태도

허정옥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본 연구에 맞도록 일부 수정 사용하였다(11).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의료인의 흡연 관련 역할, 공공장소 금연, 담배갑 흡연 경고 문구, 담배 판매 자판기, 담배갑 인상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4점의 Likert scale로 측정하였으며, 총 39점 만점으로 27점 이상은 금연에 대해 긍정적, 14-26점은 보통, 13점 미만은 부정적으로 분류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년은 2학년이 34.9%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응답자(90.6%)가 음주 경험이 있었고, 위험한 음주와 알코올 사용 장애로 분류된 대상자도 각각 32.2%, 10.1%였다(표 1).

2. 연구 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

현재 흡연자 중 흡연친구수가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2.3%로 과거흡연자의 34.8%, 비흡연자 6.8%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현재 흡연자

의 46.2%, 과거흡연자의 47.8%가 위험한 음주상태로 비흡연군의 30.1%보다 높았으며,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룹 간 흡연 지식의 차이는 없었으나 흡연에 대한 태도는 비흡연자일수록 금연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표 2).

3. 현재 흡연자 흡연실태

흡연 시작 연령은 대학생이 57.7%로 가장 높았으나 대학 입학 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흡연을 한 대상자도 42.3%였다. 흡연 동기는 순위에서 친구나 선배의 권유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호기심 26.9%, 스트레스 해소 19.2%의 순이었다.

흡연 장소는 주로 학교나 술집이었으며 하루 1-3개피를 피우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매일 피우지 않고 가끔 흡연하는 대상자도 34.7%였다.

46.2%의 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금연하겠다고 하였으나 금연 의도가 전혀 없는 대상자도 30.8%였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대상자는 없었으며, 69.2%가 낮은 그룹에 속하였다(표 3).

Table 3. Smoking status of smokers (N = 26).

Variables	Items	Frequency	Percentage
Smoking starting time	Middle school	3	11.5
	High school	8	30.8
	University	15	57.7
Motive of starting	Curiosity	7	26.9
	Friends' and seniors' invitation	11	42.4
	Stress management	5	19.2
	Good showing	2	7.7
	Others	1	3.8
Smoking place	Their or friends' house	1	3.8
	In school	12	46.3
	Parks or squares	4	15.4
	Pubs	7	26.8
	Others	2	7.7
Smoking times per day	Occasionally	9	34.7
	1-3	12	46.2
	4-6	2	7.7
	7-10	2	7.7
	> 10	1	3.7
Smoking cessation intention	No	8	30.8
	Within 6 months	12	46.1
	Within 1 month	6	23.1
Nicotine dependence	Low	18	69.2
	Moderate	8	30.8
	High	-	-

4. 흡연경험군과 비흡연군과의 음주, 지식, 태도 평균 비교

현재 흡연자와 과거흡연자를 합한 흡연경험군과 비흡연군을 비교하여 보았다. 흡연경험군은 AUDIT 점수의 평균이 9.8로 비흡연군 6.7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흡연에 대한 지식 점수는 양군 사이의 차이가 없었으며, 흡연에 대한 태도점수는 흡연경험군이 약 3 점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5. 흡연영향요인

흡연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흡연 경험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 친구 수와 지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태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흡연친구수와 흡연경험 사이에는 양-반응관계가 확연하게 나타났고, 지식 및 태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약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표 5).

고 찰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들의 흡연율은 6.4%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12)에서 나타난 19세부터 29세까지 여성의 흡연율 6.1%나 2007년 한국궐련조사연구소(13)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인 4.6%보다 높게 측정되어 간호대학생의 흡연율이 성인 여성 전체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다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20대 여성 흡연율 조사는 15%에서 21.9%로 이와 비교하면 훨씬 낮았다(2,4,5). 서미경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 여성의 결혼 상태가 사별이나 별

Table 4. Level of AUDIT, knowledge, attitude in smoking experienced and non-smoking group* (N = 404).

		N	Mean	SD	t	P-value
AUDIT	Non-smoking group	355	6.7	5.1	3.840	< 0.001
	Smoking experienced group	49	9.8	5.8		
Knowledge	Non-smoking group	355	26.7	3.6	0.017	0.098
	Smoking experienced group	49	26.7	6.1		
Attitude	Non-smoking group	355	30.4	4.4	-4.975	< 0.001
	Smoking experienced group	49	27.0	5.1		

*The smoking experienced students are those who are smokers or ex-smokers.

Table 5. The related factors to smoking experience.

Independent factors	OR	CI		P-value
		Lowest	Highest	
Number of smokers among friends				
0	1.0			
1	2.6	0.6	8.8	< 0.05
2-3	9.4	3.3	27.1	< 0.001
≥4	25.6	8.3	79.4	< 0.001
Knowledge	1.1	1.0	1.2	< 0.05
Attitude	0.9	0.83	0.96	< 0.05

*Logistic regression by stepwise method.

*Including variables were grade, religion, personal monthly expenses, AUDIT score, number of smokers among friends, knowledge, and attitude.

거, 이혼인 집단에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흡연율이 높았다(2).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는 간호대학생이므로 20대의 비대학생 그룹, 즉 판매직이나 생산직 여성들이 많이 포함된 그룹보다는 교육 등 사회경제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도 간호대학생들의 흡연율이 비교 그룹보다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중진국 혹은 후진국 보건 의료계 대학생들의 흡연율을 조사한 2005년도 Global Health Professions Student Survey (GHPSS)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간호대학생들의 흡연율은 남학생 9.5%, 여학생 3.6%, 전체 4.0%였다(5). 하지만 이 논문에는 한국의 연구자나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고, 의과대학생이나 약대생들에 대한 한국 자료도 빠져있었다. 이에 저자들은 국외에 발표된 논문 중 한국의 간호대학생 흡연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였으나 찾지 못했다. GHPSS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중 여학생의 흡연율은 한국의 3.6%에 비해 태국 0.6%, 스리랑카 0.3%, 이라크(쿠르드 지역) 10.7%, 브라질(리오데자네이로 소재) 13.1%, 페루 23.3%, 체코 33.2%, 슬로바키아 32.0%, 우간다 0.0%로 보고하여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간호대생의 흡연율이 매우 낮은 태국, 스리랑카, 우간다의 경우 남자 간호대생의 흡연율은 각각 9.6%, 7.6%, 3.3%였고, 흡연율이 높은 페루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남자 간호대생의 흡연율은 각각 43.7%와 41.8%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생이 6명에 불과하여 제외하였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모두 남학생의 흡연율이 여학생의 흡연율보다 높았으나 남학생의 흡연율이 높으

면 여학생의 흡연율도 높았다. 따라서 여자 간호대생의 흡연율은 각 나라의 성인 흡연율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 흡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주요한 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대생의 흡연과 관련된 외국의 연구를 보면, Caffney 등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을 비유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생이 된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친밀감(intimacy)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대생은 친구나 애인이나 기타 인간관계를 통해 균형잡힌 친밀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형성이 안 되면 거부나 소외에 대한 공포로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14). 흡연경험 여자 간호대생은 비흡연 여자 간호대생에 비해 흡연에 대한 지식이 약간 높고(OR 1.1), 흡연에 대한 태도 약간 너그러웠다(OR 0.9). 하지만 이런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흡연 친구수로 대변되는 흡연 문화와 친구 관계가 여자 간호대생의 흡연 경험에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호대생에 대한 금연 교육도 입학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흡연군은 비흡연군에서 금연에 대한 태도 수준이 긍정적이었는데, 허정옥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1). 홍경의의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의 흡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흡연통제력이었다(15). 간호대학생의 경우 건강과 관련된 지식이 높고 금연에 대한 지식이 높으며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흡연율이 일반대학생의 흡연율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전체 간호대생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흡연율은 같은 연령대의 타학생이나 타직업군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미경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 한국의 여고생 흡연율은 2003년 6.8%, 2005년 13.5%, 2007년 13.0%로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흡연하는 여학생이 많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학교에 들어와서 흡연을 새로 시작했다고 응답한 간호여대생이 57.7%로 가장 많았다. 흡연자의 흡연 동기도 친구나 선배의 권유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 해소가 동기라고 응답한 경우는 19.2%에 불과하였다. 흡연동기로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가 42.3%로 가장 높고, 호기심에 시작한다는 응답도 26.9%였다. 이는 다른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흡연과 관련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금연 교육 및 학교 금연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3,12).

Clark 등의 연구에 의하면 호주 간호대학생의 경우 친구의 흡연 여부가 흡연을 계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16). 본 연구에서 흡연하는 간호대학생들의 니코틴 의존도는 다수(69.2%)가 낮은 편이었지만 30.8%의 응답자가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금연 상담 및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간호대생의 흡연율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흡연친구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한 친구 수가 많을수록 흡연 경험 확률은 증가하여 친구 수가 4-5명 이상인 경우에는 흡연 경험 확률이 흡연 친구가 없는 경우에 비해 25.6배나 높았다. 친구 수가 흡연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점은 서흥관 등의 흡연 친구 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17). 하지만 흡연하는 친구로 인해 흡연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흡연을 함으로써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본 연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가 한국의 여자 간호대생을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여성 흡연자들의 경우 설문조사를 거부하거나 설문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피함으로써 실제 흡연율이 낮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흡연율 조사를 위해서는 소변 코티닌 검사와 같은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방법이 설문조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면연구의 특성상 흡연하는 친구로 인해 흡연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흡연을 함으로써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간적 속발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것도 이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와 같은 경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연구배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관련요인을 규명하여 간호 대학생들을 위한 금연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전국 4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404명을 편의 표본 표집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2009. 4. 1-6. 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의 흡연율은 현재 흡연자는 6.4%, 과거흡연자는 5.7%로 흡연경험군이 12.1%로 조사되었다. 흡연시작연령은 대학교 때가 57.7%, 흡연동기로는 친구 선배의 권유가 42.3%, 흡연 장소는 교내 46.2%, 금연횟수 1-3회 미만 이 46.2%, 금연 의도는 6개월 이내 있음이 46.2%로 가장 높았고, 니코틴 의존도는 69.2%의 응답자가 낮은 수준이었다. 금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흡연경험군은 53.0%, 비흡연군은 70.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비흡연자일수록 금연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흡연친구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금연 친구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흡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흡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흡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여자 간호대생의 흡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친구흡연자수, 흡연 지식, 그리고 태도였다. 향후 전향적 흡연 연구 및 신입생 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중심단어: 금연 교육; 간호대학생; 흡연

참 고 문 헌

1. MIHWAF: The smoking rate of Korean adults is now increasing [Internet].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cited 2009 Sept 20]. Available from: <http://www.mw.go.kr/>.
2. Seo MK. Women's smoking behavior and its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 152: 73-82.
3. Lee CY, Shin S, Lee HK, Hong YM. Validation of Self-Report on Smo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m J Health Behav. 2009; 33: 540-9.
4. Kwak JO. The smoking status and the related factors of som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Health Educ and Promot. 1995; 12: 120-38.
5. Koh YT, Lee EJ. The smoking status of women students of 6 universities in Seoul [dissertation]. Seoul: Duksung Womens' Univ.; 1996. Korean.
6. Warren CW, Jones NR, Chauvin J and Peruga A for the GTSS Collaborative Group Tobacco use and cessation counselling: cross-country. Data from the Global Health Professions Student Survey (GHPSS). Tob Control 2008; 17: 238-47.
7. Lim MH, Park MY. A survey of smoking status of women workers. Dental Research 2006; 59: 75-86.
8. Ahn HK, Lee HJ, Jung DS, Lee SY, Kim SW, Kang JH.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questionnaire for nicotine dependence. J Korean Acad Fam Med 2002; 23: 999-1006.
9. Kim JS, Oh MK, Park BK, Lee MK, Kim KJ, Oh JK. Criteria of alcoholism

- using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J Korean Acad Fam Med* 1999; 20: 1152-9.
10. Woo EK. The influencing factors of knowledge of smoking on attitude [dissertation]. Seoul: Yonsei Graduate School; 2002. Korean.
11. Huh JW. The smoking status and knowledge of dentists [dissertation]. Seoul: Kyunghee graduate school; 2007. Korean.
12. MIHWAF: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07 [Internet].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cited 2009 Sept 20]. Available from: <http://www.mw.go.kr/>.
13. KASH: A survey for adults' smoking status [Internet]. Seoul: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cited 2009 Sept 20]. Available from: <http://www.kash.or.kr>.
14. Caffney KF, Wichaikbum OA, Dawson EM. Smoking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 time for change. *J Obstet Gynecol Nurs* 2002; 31: 502-7.
15. Hong KU. A analysis of smoking behavior of Korean women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2002; 19: 13-34.
16. Clark E, McCann TV. The influence of friends on smoking commencement and cessa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ontemporary Nurse: a Journal for the Australian Nursing Profession* 2008; 27: 185-93.
17. Seo HG, Choi JH, Yanf YJ. The smoking status and influencing factors of Korean medical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Fam Med* 1995; 16: 110-35.